



아이디어 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새로운 용도를 찾아라

돼지에게 진주는 '먹지 못하는 쓸데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저 돼지에게는 구정물이 최고이다. 돼지가 쓰임새를 아는 물건이라고는 먹는 것밖에 없으니 말이다.

아무리 멋진 보석이거나 훌륭한 기계일지라도 그 쓰임새를 모르면 헛일이다. 운전을 전혀 못하는 사람에게 승용차를 주면 뭐하겠는가? 쓸데없이 사고만 일으킬 뿐이다. 결국 돼지에게 값비싼 진주를 던져준 꼴밖에 안되는 것이다.

이에 정반대로 새로운 용도의 발견으로 발명품의 값어치를 한층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돼지의 구정물을 진주의 값어치로 쓸 줄 아는 사람인 것이다.

구두, 지갑, 바지, 가방 등 거의 물건에 사용되는 지퍼. 이 지퍼도 한때는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와 같은 천덕꾸러기 신세였다. 이것을 최대의 발명품으로 끌어 올린 것은 새로운 용도를 개발해낸 여러사람에 의해서이다.

지퍼는 1893년 미국의 제트슨에 의해 발명되었고, 이것을 대량생산하는 기계를 발명한 사람은 워카라는 육군중령이었다.

“제트슨과 워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벌었겠네! 지퍼야말로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일상품이니까!”

물론 정상적이라면 이 말과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공로자가 얻은 것은 막대한 손해와 19년이라는 시간의 낭비뿐이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바로 지퍼의 사용도를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지퍼는 엉뚱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안겨다 주었다. 부르클린의 한 양복점 주인은 전대와 해군



복에 지퍼를 사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고, 1921년 굿드리치사는 잠바에 지퍼를 사용해 유례없는 판매고를 올렸다. 그리고 1930년 프랑스의 디자이너 사부인은 부인용 예복에 그것을 사용하여 큰 인기를 누렸다.

발명가가 19년이라는 시간을 바쳤어도 얻어내지 못한 성공을 이들은 단 몇시간만에 이루어낸 것이다. 확실히 보물은 보물을 알아보는 사람의 것이 된다.



웃이 날개다

요즘 문방구점에 가보면 각각 각색의 각종 문구(학용품)들이 화려하게 진열되어 있다.

지우개, 연필, 공책, 필통 등 수많은 문구들이 하나 같이 모양과 색상을 자랑하며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필자가 학교에 다닐 때에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생산회사는 달라도 거의가 한 모양 한 색깔이었기 때문이다.

세상이 달라져도 너무도 달라졌다. 하이만이 연필의 한쪽 끝에 지우개를 붙여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었다는 실화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거나 요즘 연필들은 한쪽 끝에 각종 장식품을 붙여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부추기고 있다.

지우개도 마찬가지다.

야구볼 모양을 한 것에서부터 호들이 모양을 하고 나온 것도 있어 펍 흥미있다. 같은 지우개라면 모양이 특이하거나 예쁜 것을 고른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어린이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모든 새로운 것에는 고안자의 출원이 있으면 심사를 거쳐 의장권이 주어진다.

미국의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는 매우 화려하게 디자인되어 누구나 한번 타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로워' 라는 사람이 어떤 색깔을 배합해서 '어떤 모양을 넣으면 대중이 타고 싶은 충동을 일으킬까?' 하고 꾸준히 연구한 결과였다.

이처럼 의장은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특허 못지 않게 중요시 취급되고 있다.

특히나 실용신안으로서 아주 훌륭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은 의장뿐이다.

좋은 상품에 좋은 의장이 곁들이면 단시일에 인기 상품이 될 수 있다. 때로는 그다지 좋지 않은 상품일지라도 의장이 좋으면 일시적 인기는 누릴 수 있다.

'웃이 날개' 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주> **발특 9905**

